

■ 영화평 ■

그리피스 감독의 <국가의 탄생> : 역사의 왜곡, 인종주의의 정수

황 혜 성(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그리피스(D. W. Griffith) 감독의 <국가의 탄생(*The Birth of a Nation*)>은 1915년에 제작된 무성영화이다. 이 영화가 로스엔젤레스에서 개봉되었을 때 영화 평론가들은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 이 영화는 당시까지 상연된 영화로서 처음 만들어진 스펙터클 영화였으며, 독창적인 카메라 기법으로 기술적인 면에서도 단연 가장 앞선 영화였다. 그리피스 감독은 최첨단 영화기술을 채택하여 전 세계 영화제작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영화는 활동사진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많은 흥행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이 영화는 백악관에서 상영된 첫 번째 영화이기도 했다.

이처럼 기술적으로 앞선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은 내용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역사를 왜곡하고 인종분리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면서 흑인에 대한 백인의 테러리즘을 정당화한 영화이다. <국가의 탄생>은 남북전쟁 전과 전쟁기간, 그리고 재건시기(Reconstruction)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¹⁾ 특히 이 영화는 링컨 암살이후 대통령이 된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 행정부 시기에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기위해 노력한 급진적인 공화당을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 같은 시각으로 인해 <국가의 탄생>은 역사왜곡의 대표적인 영화로 꼽힌다.

1) 미국 역사에서 남북전쟁(1861-1864)이 끝난 후부터 1877년까지의 시기를 재건시기(Reconstruction)라고 부른다. 이 기간 동안 북부는 남부에 군정을 실시하면서 남부의 연방 복귀를 추진했다.

남북전쟁 기간과 남북전쟁 후 재건시기를 배경으로 한 <국가의 탄생>은 토마스 디슨(Thomas Dixon Jr.)이 쓴 소설과 희곡 『클란맨(The Clansman)』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디슨은 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침례교 목사로 대중적 인기가 있었다. 인종주의자인 디슨은 흑인의 위험성을 미국 국민에게 일깨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노예제도와 남부 재건의 실상을 알리는 글을 쓰고자 마음먹었고, 1902년 『레오파드의 점무늬(The Leopard's Spots)』를 출판하여 인종분리와 흑인 억압의 필요성을 극화하였다. 그리고 3년 후인 1905년에 <국가의 탄생>의 모태가 된 『클란맨』을 출판하여 흑인의 위협에 대한 그의 우려를 묘사했다. 따라서 <국가의 탄생>이 초연되었을 때에는 제목이 <클란맨>이었으나 디슨이 더 강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제목으로 바꾸기를 그리피스 감독에게 제안함으로써 <국가의 탄생>으로 바꿨다.

영화의 원작자인 디슨에게 흑인은 국가적인 문제 거리였다. 흑인의 존재는 미국 문명과 백인 여성을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그 위협은 재건시기에도 그랬듯이 1900년에도 커다란 위협으로 떠오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영화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는 자신이 소설을 쓴 목적은 “북부 사람들에게 ... 재건기간동안 백인이 겪어야 했던 엄청난 고통을 알려주는 것이며 ... 세계에 백인이 우월하며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의 탄생>은 그의 의도대로 ‘인간 이하인 흑인 남자’의 원초적인 본능과 앵글로 색슨 종족의 생존을 극적으로 대비시킨다.

<국가의 탄생>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고,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어 상영시간이 3시간 10분에 달하는 긴 영화로, 등장하는 두 집안의 관계와 삶을 통해서 재건시기에 남부가 겪은 ‘비극’을 그리고 있다. 즉 북부 펜실베이니아의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당 국회의원 오스틴 스톤맨(Austin Stoneman) 집안과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전형적인 농장주인 스포티스우드 카메론(Spottiswood Cameron) 집안과의 관계를 통해 재건시기에 남부가 겪은 고통과 비애를 묘사하고자 했다. 재건시기의 남부에서는 극단적인 흑인선동가와 ‘쓰레기 같은’ 백인파이에 부화뇌동한 사람들이 이제 막 해방된 무식한 흑인들의 한 표를 이용하여 남부에 흑인 독재국가를 세우려하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영화가 시작되면 서막에 “활동사진을 위한 탄원”이라는 글과 함께 끔찍한 전쟁에 대한 경고가 먼저 언급된다. 그리고 “17세기 노예제도의 도입은 미래의 불화와 무질서의 씨앗을 심었다”는 자막과 함께 미국에 끌려와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아프리카 흑인의 이미지가 뒤따라 나오면서 영화 전반부가 시작된다. 그리고 남북전쟁 전의 평화로운 남부의 정경이 펼쳐지고, 북부 스톤맨 집안의 두 아들, 필(Phil)과 토드(Tod)가 기숙사 친구인 케메론가의 아들들을 만나러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카메론가 저택을 방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필이 마가렛 카메론(Magaret Cameron)과 사랑에 빠지고, 카메론가의 아들 벤(Ben Cameron)은 필의 여동생인 엘지(Elsie Stonman)의 사진을 보고 한 눈에 반하는 사건으로 전개된다.

한편 흑인노예들은 그들 숙소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저녁식사를 즐기고 있고, 노예 주인들은 흑인노예와 하인들의 춤과 재롱을 보며 마냥 즐거워한다. 그리고 “폭풍이 몰려온다. 새로운 행정부로 인해 남부가 위협 받는다”는 자막과 함께 카메론 박사가 “만약 북부가 선거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남부는 연방에서 탈퇴할 것이다.”라는 신문 머리 기사를 읽어준다. 전쟁의 전조가 보이자 필은 마가렛에게 “다시 만날 때 까지 자신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토드와 함께 북부로 돌아간다.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모든 청년들은 입대하고 전쟁에 참여한다. 전쟁은 두 집안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남부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한다. 전쟁 중 북부 흑인병들은 카메론 저택을 약탈, 방화한다. 카메론 집안 여자들은 남부 연합군이 흑인들을 쫓아내서 겨우 구출된다. 그러나 전쟁에서 스톤맨 가의 막내 아들 토드와 카메론 가의 아들들이 전사한다. 벤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 ‘작은 단장(the Little Colonel)’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지만 부상당하고 북부 병원으로 이송된다. 그는 그곳에서 간호사로 자원하여 일하고 있는 엘지를 만난다.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나고, 링컨 대통령이 포드 극장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오스틴 스톤맨과 다른 급진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남부가 전쟁 전 연방에서 분리해 나간데 대해 급진적인 재건정책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그리피스가 전형화한 ‘재건시기’가 묘사된다.

따라서 영화의 후반부는 재건시기를 다루고 있다. 재건시기를 폭력과 약탈의 시기로 묘사하는 후반부에서도 스톤맨가와 카메론가는 남부와 북부의 입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북부와 남부의 화합과 결속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나무 숲에서 벤은 엘지에게 키스하고 사랑의 징표로 하얀 비둘기를 선사한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엘지는 결국 벤의 키스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패배한 남부는 쉽게 “쓰디 쓴 기억들을” 잊을 수 없음을 다음의 장면으로 시사한다. 필이 정원에서 그녀의 애인이었던 마가렛에게 말을 걸려고 노력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 볼 뿐 말을 하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벤으로부터 떨어져 정원 저편으로 걸어간다. 이때 그녀는 전쟁터에서 죽은 동생을 떠올린다.

한편 스톤맨과 그의 흑백혼혈 부하인 시라스 린치(Silas Lynch)는 투표권을 받은 흑인들의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향한다. 남부 거리에서 흑인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선거일에 투표장에 온 백인들은 되돌려 보내지는 반면, 흑인들은 투표장으로 들어간다. 선거결과 다수의 흑인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 시라스 린치는 부지사로 당선된다. 새로 선출된 흑인 국회의원들은 백인 시민들에게 흑인 관리들에게 경례할 것을 요구하고, 인종간의 결혼을 허가하는 법령들을 통과시킨다.

반면 “그는 남부 백인의 파멸과 하락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는 자막과 함께 벤이 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남부의 운명을 걱정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백인 어린이들이 귀신처럼 하얀 천을 두르고 흑인 아이들을 겁주어서 도망가게 하는 것을 본 벤은 여기서 “영감을 얻어,” KKK를 결성한다. KKK는 “흑인 지배의 무정부 상태에서부터 남부를 구하는 조직”으로, 흑인을 ‘그들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남부백인의 남부 통치”와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엘지는 벤의 KKK 참여에 처음에는 화를 내지만 결국 묵인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어 또 다른 등장인물인 카메론가의 둘째 딸 플로라(Flora Cameron)가 숲속 샘에서 물을 바켓스에 담고 있다. 이때 그녀 집안의 흑인 노예였던 거스(Gus)가 그녀를 발견한다. 거스는 노예 출신으로

교육을 받았고, 군대에서 인정받은 흑인이다. 그는 플로라 뒤를 쫓아가 그녀에게 “(군복 모자를 만지며) 봐, 이제 나는 장교야. 나랑 결혼해줘”라고 말하며 청혼한다. 거스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플로라는 그의 뺨을 때리고는 숲으로 도망간다. 그녀는 뒤를 쫓는 거스를 피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다. 낭떠러지에 선 그녀는 거스가 뒤 따라 오자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릴거야”라고 소리 지른다. 그리고 균형을 잃은 그녀는 아래로 떨어진다. 이 장면은 해방된 흑인들이 백인여성을 강간하려 했다는 뉴앙스를 강하게 풍긴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던 벤은 절벽아래에서 죽어가는 플로라를 발견한다. 결국 플로라는 벤의 팔에 안긴 채 죽는다. 벤의 얼굴에 복수의 그림자가 스친다. 벤은 KKK를 이끌고 거스를 잡아서 죽이고, 그의 시체를 부지사인 시라스 린치 집 앞에 놓아둔다. 이에 대해 시라스 린치는 흑인 민병대에게 KKK를 박멸할 것을 명령한다. 이에 카메론가는 퇴역 북부군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오두막집으로 피신한다.

한편 오스틴 스톤맨이 북부로 돌아 간 후 부지사 린치는 오스틴 스톤맨의 딸 엘지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흑인 제국을 세우겠소. 당신은 내 아내로 내 옆에서 제국을 통치할 거요.” 이러한 상황을 발견한 KKK가 전력을 보강하고, 그녀를 구하고, 반란중인 니그로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달려간다. 동시에 린치가 이끈 흑인 민병대는 카메론가 사람들이 숨어 있는 오두막집을 포위하고 공격한다. 그러나 때 마침 벤이 이끌고 온 KKK가 그들을 구한다. 그리고 승리한 KKK들이 거리에서 승리를 자축한다. 그리고 KKK단원들이 흑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데 성공하고 흑인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장면으로 넘어간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필과 마가렛, 그리고 벤과 엘지 두 쌍이 함께 결혼한다. 그리고 전쟁의 신으로 고통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의 이미지 아래 평화를 되찾는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으로 “Dare we dream of a golden day when the bestial War shall rule no more? But instead- the gentle Prince in the Hall of Brotherly Love in the City of Peace.”가 나오며 영화가 끝난다.

<국가의 탄생>에서 재건정책은 “국가로 태어나기 위해 남부가

감내해야 할 고뇌”였다. 그리고 이 “고뇌”는 흑인 남자들의 다양한 행동을 의미하기도 했다. 흑인들은 노예해방과 투표권 부여로 오만 방자하고, 약한 백인을 테러하고, 백인여자에게 추파를 던진다. 심지어 흑인들은 “동등한 권리, 동등한 결혼, 동등한 정치”를 주장한다. 사악한 흑인들은 감히 백인 여성들에게 결혼을 강요한다. 이렇게 <국가의 탄생>은 백인들에게 노예제도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흑인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즉 수동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삼보(Sambo) 타입의 전통적인 흑인 상을 포함해서 혁명적인 외양을 띤 시라스 린치, 강간범인 거스의 이미지와 같이 사악하고 위험한 흑인상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모든 흑인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이전의 영화에서 흑인은 광대나 익살꾼으로 그려져 왔다. 그러나 <국가의 탄생>에서 흑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소개되었다. 즉 그들의 웃는 얼굴과 아첨하는 태도는 사악한 본성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악당은 혼혈인 사일러스 린치로 그는 성욕과 야만적인 흑인의 욕망을 백인 피에서 영향 받은 지적이고 조직적인 행동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 영화에서 KKK는 ‘검둥이 무정부주의’로부터 남부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백인 지배권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재건기’의 종식만이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 영화의 암시는 명백하다. 포위된 카메론가 사람들이 두 명의 퇴역한 북군 소유의 한 통나무집에서 피난처를 마련하고 흑인 군인에게 저항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은 이 영화의 기본 정신을 전달한다. 즉 “이전의 적이었던 북부와 남부가 백인의 공통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이제 다시 힘을 합친다”는 것이 이 영화가 내포한 주제이다. 재건을 주장했던 스톤맨집안 사람들도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결론이다. 딕슨과 그리피스에 따르면 이러한 구원을 통해 미국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다. 인종에 기반하여 백인들이 절대 권력을 다시 되찾은 후에야 비로소 그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KKK가 전후 남부를 구원한 것으로 묘사한 <국가의 탄생>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국가의 탄생>은 재건시기를 재앙으로 그린다. 즉 노예폐지론자들, 해방된 흑인들, 북부에서 온 쓰레기 같은(carpetbagging) 공화당 정치인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형편없는 일부 남부백인들에 의해 남부는 이시기에 재앙을 맞았다. 둘째로 야수 같은 본성을 지닌 흑인은 절대로 백인과 동등할 수 없고, 백인사회로 그들이 통합될 수 없다. 그리고 KKK의 폭력적인 행동은 남부에 합당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다.

이 같은 메시지를 지닌 <국가의 탄생>은 그야말로 역사를 왜곡한 영화로 인종주의의 정수라 하겠다. 특히 재건시기를 불행한 재앙의 시기로 그린 이 영화는 역사적인 해석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역사해석은 당시 남부출신 역사가들이 주축이었던 더닝(Dunning) 학파²⁾의 재건해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더닝학과 역사가들은 재건시기는 선과 악의 투쟁시기로, 악한 사람들(북부인과 흑인)이 선한 사람들(남부)을 권력에서 쫓아내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수립하여 남부인들은 “그야말로 고통에 신음했던” 시기였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오늘날 더닝 학파는 반흑인 인종주의의 산물로 비판받고 있다.

영화 역사상 이렇게 인종주의적이고 역사를 왜곡한 영화는 아마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편파적인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인종주의적인 내용에 관객들이 열광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시대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흑인 역사상 1880년대 이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까지의 시기는 소위 ‘짐 크로우 시기’로 불리운다. 이 시기는 흑인 차별과 분리가 법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고, 인종주의가 극심했던 시기이다. 그리하여 백인 우월주의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흑인들은 재건시기에 주어졌던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분리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백인의 착취와 이용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리고 흑인들의 야수적인 본능을 내세우며 “짐승은 때려야 배운다”는 정당화와 함께 흑인의 재산을 불태우고, 흑인을 폭행하고 살해했다. 1890년대 10년 동안 14개 주 남부 주에서 발생한 린치는 매년 평균 138건에 달했다. 특히 1892년에는 156건으로 가장 많은 흑인린치가 행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잔혹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거의 없었고, 백인은 흑인 살해 폭행 혐의로 구속되어도 대부분

2) 더닝 학파는 1890년~1930년 사이에 주를 이룬 학파로서 콜롬비아 대학교 윌리엄 A. 더닝(William A. Dunning) 교수가 중심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더닝학파라고 불린 일군의 역사가들은 재건기를 비극과 비애의 시기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재건기를 남부 발전에 일조한 시기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가벼운 별을 받거나 방면되었다. 여기에 백인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흑인의 열등함을 증명하려 했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하고자 했다. 이것이 디슨의 <클란맨>과 <국가의 탄생>이 쓰여지고 영화로 만들어진 시대 배경이다.

따라서 <국가의 탄생>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흑인을 ‘그들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완벽한 흑백분리를 유지하고자 했던 백인들의 저의에서 만들어진 영화다. 그리고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한 영화이기도 하다. <국가의 탄생>은 분명 허상과 오류투성이이고, 잘못된 흑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가 전달하는 생생한 이미지로 인해 이 영화는 “야수적인 인간 이하의 검둥이”라는 흑인의 인종적 전형(stereotype)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최고의 공훈(?)을 남겼다. 2002년 <로스엔젤레스 타임즈(Los Angeles Times)>에 따르면 <국가의 탄생>은 1920년대 KKK의 재조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70년대에도 KKK는 단원모집의 한 방법으로 <국가의 탄생>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흑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잔혹한 영화라 하겠다.